

노인단독가구의 주행위와 가구·가전제품의 사용 특성

The Characteristics of Living Behavior and Using Furniture and Home Appliances by Elderly-Headed Households

권오정*

Kwon, Oh-Jung

이용민**

Lee, Yong-Min

하해화***

Ha, Hae-Hwa

신혜인***

Shin, Hye-In

김형우****

Kim, Hyung-Wo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behavioral patterns of elderly residents an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using furniture and home appliances by elderly-headed households. For this purpose, field studies that included observation and open-ended interview were conducted with 52 elderly-headed household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elderly-headed households need home appliances with lighter body, lower capacity and simple functions. Furniture for elderly people should be designed to minimize the inconvenience of using western style furniture, also the behavior patterns which are important to the elderly like taking medicine have to be considered. And it is necessary to design furniture and equipments properly to prevent accidents happened in housing. Lastly, because the elderly relies heavily on watching TV, it will be desirable to apply TV-friendly devices such as home networking and home automation. Research results will be useful information on product design to reflect characteristics of elderly and follow-up studies associated with each furniture and appliances and specific living behavior are needed.

Keywords : Elderly-Headed Households, Living Behavior, Pattern of Furniture Usages, Pattern of Home Appliance Usages

주요어 : 노인단독가구, 주생활행위, 가구 사용실태, 가전제품 사용실태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핵가족화와 부모세대, 노인세대의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노인단독가구(1인 및 부부가구)의 증가로, 우리나라 전체 노인 가구 중 노인 단독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에 25.8%에서 2004년에 51.2%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인 1인 또는 부부만으로 형성된 가구의 지속가능한 생활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사회전반적인 체계가 필요하다.

노화로 인해 생활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은 사회적 관계가 축소됨에 따라 대부분의 시간을 주택 내 또는 인근 환경에서 보내게 된다. 따라서 환경 의존성이 강한 노인에게는 이들의 행태적 특성에 적합한, 즉 지원성이 높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생활하며 나타나는

일상적인 행위특성과 그것을 지원하는 가구·가전제품 사용행태와 같은 생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 단독가구의 주생활행위 특성과 가구 및 가전제품의 사용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노인의 주생활 특성에 맞는 가전이나 가구의 개발·보급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에서 노인의 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연령, 가구유형, 주택유형 등의 변인을 고려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이고 노인단독가구(노인 1인 혹은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여 선정하였다. 4가구를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를 거쳐 총 52가구(74명)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지연구(field study)방법¹⁾을 채택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는 2009년 6월 22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하였다. 조사방법은 훈련된 조사자가 조사대상 노인가정을 직접 방문 관찰하여 구조화된 조사도구에 기록하고 인터뷰가 필요한 부분은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사진촬영, 스케치 등을 병행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 관찰 및 면접조사를 위해 개발된 조사도구에 포함된 조사내용과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아래 <표 1>과 같고, 자

*정회원(주저자),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주거환경전공 교수, Ph.D

**정회원(교신저자),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주거환경전공 박사과정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주거환경전공 박사과정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주거환경전공 석사과정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KRF-2008-313-C01002)의 일부임.

이 논문은 2009년도 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료의 분석은 조사자료 중 기술적 통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SPSS-PC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조사원에 의해 직접 기록된 자료는 정성적 분석을 통해 내용분석을 하였고, 2차적인 분석이 필요한 변인의 경우에는 정성자료를 유형화하여 정량적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조사 내용

조사내용	조사항목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구유형
주거특성	주택유형, 주택규모, 거주기간, 주택경과연수
보유 가구 및 가전제품	보유가구 및 가전제품의 종류, 형태, 용도 사용시 편리한 점, 불편한 점, 개선요구사항
주생활 행위	주요 주생활 행위, 행위발생장소, 구체적인 방법, 행위발생횟수 등

III. 선행 연구 고찰

노인 주거환경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도로 진행되어왔으나,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재가노인의 주생활행위와 가구, 가전제품 사용실태와 같은 공간사용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본 연구와 같이 현지연구방법을 활용한 노인 주거공간 연구가 시도된 바는 있다. 주서령·김민경(2005)은 노인주거시설의 부엌가구 디자인 가이드개발을 목적으로, 노인주거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거주자 인터뷰와 생활패턴 관찰을 통하여 노인주거시설의 식사서비스와 관련된 단위주호의 부엌가구 사용행태를 조사하였다. 최유진 외(2007)는 도심한옥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주생활동선과 주생활행위(취침, 식사, TV시청 등), 실별 공간이용 행태를 조사하여 도심한옥에 대한 공간이용실태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기존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방법에서 벗어나, 노인을 대상으로 관찰·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생활행태를 면밀히 살펴 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지만, 노인주거시설과 도심한옥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보다 보편적인 노인들의 생활행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생활행위와 가구, 가전제품 사용행태와 관련된 연구는 시도된바 없으나,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안방을 중심으로한 가구, 가전

제품 사용 실태 연구들은 수행된 바 있다. 이미혜 외(1999)는 아파트 거주자의 안방생활행위와 가구사용행태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안방의 공간적 성격과 기능을 규명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안방에서 일어나는 주행위 6가지(물단장, 휴식, 가사, 취미, 가족단란, 손님맞이)와 가구 배치형태·유형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강형규 외(2005)도 아파트 안방의 가구와 주생활행위에 관한 연구에서 안방 공간사용의 실태를 조사하여 평면유형, 주생활 행위와의 관계, 가구와 공간사용의 경향을 분석하였고, 가구 소유실태 조사항목에 TV, 컴퓨터 등의 가전제품을 포함시켜 조사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주행위와 가구사용행태만을 관련지어 수행되었지만, 본 연구는 가구뿐만 아니라 주행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가전제품을 조사항목에 포함시켰다는 점과 안방 등과 같은 특정 실에 국한되지 않고, 주택 전체를 조사공간으로 하여 노인단독가구의 주행위와 가구·가전제품의 사용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개인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성이 68.9%, 남성이 31.1%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평균연령은 73.9세로, 60세 이상 75세 미만인 51.4%, 75세 이상이 48.6%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건강상태²⁾는 건강한 노인과 허약한 노인의 비율이 각각 50%로 동일하였다<표 2>.

표 2. 개인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N=74)

항목	구분	n	%	항목	구분	n		%	
						n	%	n	%
성별	여성	51	68.9	건강상태	건강	37	50.0		
	남성	23	31.1		허약	37	50.0		
	소계	74	100.0		소계	74	100.0		
연령 (73.9)	75세 미만	38	51.4	직업	직업 유	9	12.2		
	75세 이상	36	48.6		직업 무	65	87.8		
	소계	74	100.0		소계	74	100.0		

가구별 특성을 살펴보면, 1인가구가 57.7%, 2인가구가 42.3%로 1인가구의 비율이 높았으며, 가구 월소득³⁾ 평균은 115만9천원으로 154만원 미만인 가구가 75.0%로 154만원 이상인 가구(25.0%)보다 많았다. 가구별 주거특성으로 주택규모는 전체 평균 25.6평으로 10평대가 3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20평대가 28.8%, 30평대가

1) 현지연구(field study)는 문화인류학에 근원을 둔 ‘문화기술학(Ethnography)’으로 현지인의 관점에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과 개방적 질문의 인터뷰(open-ended interview)가 주로 사용되는 이 방법은 가설을 세워 입증해 나가는 방식과는 다르며, 과학적 방법은 수집한 설문문의 통계적 처리방법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대상을 다루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질적연구인 이 방법은 소수의 현장을 택하여 심도 있게 대상을 파악하는 장점이 있다. 즉, 집을 물건으로서가 아니라 생활과 공간과의 대응관계로 좁고 깊게 본다는 점에서 많은 수를 연구하는 과학적 방법과 차이가 있다(임미정, 2002; 7).

2) 건강상태는 ‘아주건강’, ‘건강한편’, ‘건강이 나쁜편’, ‘건강이 아주나쁨’의 4점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고, 조사대상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건강상태이다. ‘아주건강’, ‘건강한편’은 ‘건강으로’, ‘건강이 나쁜편’, ‘건강이 아주나쁨’은 ‘허약’으로 통계처리 하였으며, 2인가구에서는 한명 이상 허약한 경우에 ‘허약’으로 분류하였다.

3) 월소득은 2007년도 주거실태조사(2008, 국토해양부)에서 사용된 저소득층과 중·고소득층을 구분하는 ‘154만원’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17.3%, 40평대 이상이 15.4% 순으로 많았으며, 10평대 미만은 3.8%였다. 주택유형은 다세대·연립·다가구 주택이 67.3%로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는 17.3%, 단독주택은 15.4%였다. 거주기간은 10년 미만이 40.4%, 10-20년 거주가 38.4%, 20년 이상이 21.2%였으며, 주택 경과년수는 10-20년이 44.3%, 20년 이상도 40.4%를 차지했고, 나머지 15.4%는 10년 미만이었다<표 3>.

표 3. 가구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N=52)

항목	구분	n	%	항목	구분	n	%
가구 유형	1인 가구	30	57.7	주택 유형	아파트	9	17.3
	2인 가구	22	42.3		다세대연립다가구*	35	67.3
	소 계	52	100.0		단독주택	8	15.4
가구월 소득 (116만원)	154만원 미만	39	75.0	거주 기간 (11.7년)	10년 미만	21	40.4
	154만원 이상	13	25.0		10-20년 미만	20	38.4
	소 계	52	100.0		20년 이상	11	21.2
주택 규모 (25.6평)	10평 미만	2	3.8	경과 년수 (17.4년)	10년 미만	8	15.4
	10평대	18	34.6		10-20년 미만	23	44.3
	20평대	15	28.8		20년 이상	21	40.4
	30평대	9	17.3		소 계	52	100.0
	40평 이상	8	15.4				
소 계	5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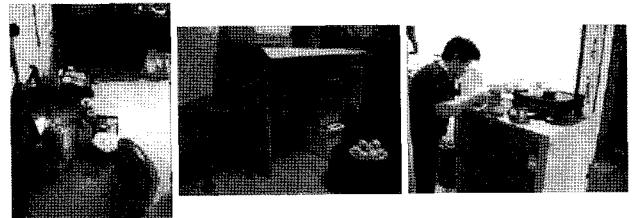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에 속하나 주택 내의 생활패턴은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과 비슷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다세대/연립/다가구'를 하나의 주택유형으로 정하여 분석하였음.

2. 노인단독가구의 주생활행위 특성

가구·가전제품 사용과 주생활행위는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생활행위의 분석은 노인단독가구를 위한 가구·가전제품 개발을 위해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주생활행위 유형은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는데, 본 연구의 주생활행위는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일상생활동작)과 IADL(Institution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 중 주택 외부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제외한 행위와 주행위를 연구한 선행연구(강형구, 2005; 박윤정 외 2, 2007; 김미희, 2005; 송대호, 2006)의 행위유형 중 노인단독가구에서는 빈번하게 발생되지 않는 행위(접대행위, 가족단란행위 등)들을 제외한 행위와 관찰조사 결과 기존 문헌에서는 추출되지 않았으나 연구자의 관찰조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관찰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추가하여 총 8개의 주행위(식사, 설거지, 빨래, 청소, 약복용, 목욕, 전화, TV시청)를 본 연구의 주요 주생활행위로 정하였다. 이렇게 추출한 행위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정성적 자료를 각 행위별 방법과 횟수, 발생 장소 등으로 분류하여 정량적 방법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다<표 4>.

식사와 관련된 행위를 살펴보면, 밥하는 방법이나 밥 먹는 방법은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거의 대부분이 전기밥솥을 사용하여 취사를 하고, 전기밥솥의 보온기능을 이용하여 보관하였다가 끼니때 꺼내먹는 행태를 보였다. 식사하는 장소는 주로 부엌 또는

식당이지만, 1인가구일 경우에 부엌 외 거실이나 침실에서 자유롭게 식사를 하는 비율이 약 4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들에게 집안에서 간식 먹는 행위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주로 간식은 거실 또는 부엌·식당에서 먹으며, 식사행위와 마찬가지로 1인가구이거나, 허약한 노인의 경우, 거실보다는 자신의 침실에서 간식을 먹는 비율이 높았다. 공간사용실태와 관련된 선행연구(김미희 외, 2005)결과와 비교해 볼 때 안방(침실)에서 식사나 간식을 먹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전체 조사대상의 0.7%, 1.9%였음을 감안하면, 노인들의 침실에서 식사행위(주식: 13.7%, 부식: 19.7%)는 주목할만한 결과이다. 또한 침실 또는 거실에서 식사행위는 부엌에 고정된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엌에서 식사준비 후에 상이나 접시 등을 이용하여 침실과 거실로 옮겨서 식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1>. 조사대상 노인 중 신체적인 노화로 인해 구부리거나 무거운 것을 들고 옮기는 것이 힘들어, 상을 옮기는 행위에 부담을 느끼거나 동거인 또는 보조자가 없을 경우 그 행위를 포기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a) 침실에 있는 식사용 교자상 (b) 간식을 부엌에서 준비해서 교자상에 올려놓음 (c) 김치냉장고 위에서 간단히 교자상 위에 식사준비를 함

그림 1. 식사 행위 사례

설거지 유형은 대부분 설거지거리가 생길 경우 그때그때 하는 경향을 보였지만(68.5%), 1인가구일 경우에는 설거지 거리를 모아서 한꺼번에 한다는 노인이 33.3%로 2인 가구에 비해 많았으며, 이는 1인가구의 설거지양이 2인 가구에 비해 적고, 설거지 거리가 쌓여도 신경 쓸 동거인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빨래의 경우는 손빨래만 하는 노인, 기계빨래만 하는 노인, 둘 다 하거나 둘 다 안하는 노인, 모두 비슷한 비율을 보였지만, 성별, 월소득, 가구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남성 노인 대부분이 가사일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빨래를 하지 않는 경우가 82.6%였고, 소득이 높은 경우, 손빨래와 기계빨래를 병행하거나 빨래행위를 하지 않는 노인이 많았지만(85.7%), 소득이 낮은 경우 손빨래와 기계빨래 중 선호하는 것을 한 가지만 하는 노인이 많았다. 빨래행위를 하지 않는 노인들은 도우미 또는 자녀가 방문해 빨래를 대행하였고, 저소득 노인이 기계빨래를 하지 않는 것은 전기료 부담과 같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손빨래는 주로 욕실에서 이루어지고 있

표 4.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주요 주행위 특성

(N=74)

주요주행위	세부행위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월소득				건강 상태				가구 유형				전체			
				여		남		75세 미만		75세 이상		저		고		건강		허약		1인				2인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식사	발하는방법	전기밥솥	42	89.4	2	100.0	22	91.7	22	88.0	32	86.5	12	100.0	20	87.0	24	92.3	24	85.7	20	95.2	44	89.8	
		압력솥	2	4.3	0	0	1	4.2	1	4.0	2	5.4	0	0	0	0	2	7.7	1	3.6	1	4.8	2	4.1	
		기타 솥	3	6.4	0	0	1	4.2	2	8.0	3	8.1	0	0	3	13.0	0	0	3	10.7	0	0	3	6.1	
		전체	47	100.0	2	100.0	24	100.0	25	100.0	37	100.0	12	100.0	23	100.0	26	100.0	28	100.0	21	100.0	49	100.0	
식사하는장소	발하는방법	전기밥솥에서 꺼내서	40	78.4	21	91.3	32	84.2	29	80.6	41	77.4	20	95.2	33	89.2	28	75.7	22	73.3	39	88.6	61	82.4	
		전자렌지에 태워서	7	13.7	2	8.7	4	10.5	5	13.9	8	15.1	1	4.8	2	5.4	7	18.9	4	13.3	5	11.4	9	12.2	
		찬밥 그대로	1	2.0	0	0	1	2.6	0	0	1	1.9	0	0	0	0	1	2.7	1	3.3	0	0	1	1.4	
		기타	3	5.9	0	0	1	2.6	2	4.8	3	5.7	0	0	2	5.4	1	2.7	3	10.0	0	0	3	4.1	
식사하는장소	발하는방법	부엌/식당	36	70.6	17	77.3	29	76.3	24	68.6	35	67.3	18	85.7	29	78.4	24	66.7	18	60.0	35	81.4	53	72.6	
		거실	7	13.7	3	13.6	6	15.8	4	11.4	8	15.4	2	9.5	5	13.5	5	13.9	6	20.0	4	9.3	10	13.7	
		침실	8	15.7	2	9.1	3	7.9	7	20.0	9	17.3	1	4.8	3	8.1	7	19.4	6	20.2	4	9.3	10	13.7	
		전체	51	100.0	23	100.0	38	100.0	36	100.0	53	100.0	21	100.0	37	100.0	37	100.0	30	100.0	44	100.0	74	100.0	
식사하는장소	간식먹는장소	부엌/식당	18	40.0	6	37.5	11	36.7	13	41.9	16	35.6	8	50.0	14	45.2	10	33.3	10	38.5	14	40.0	24	39.3	
		거실	17	37.8	8	50.0	15	50.0	10	32.3	18	40.0	7	43.8	14	45.2	11	36.7	7	26.9	18	51.4	25	41.0	
		침실	10	22.2	2	12.5	4	13.3	8	25.8	11	24.4	1	6.3	3	9.7	9	30.0	9	34.6	3	8.6	12	19.7	
		전체	45	100.0	16	100.0	30	100.0	31	100.0	45	100.0	16	100.0	31	100.0	30	100.0	26	100.0	35	100.0	61	100.0	
설거지	설거지유형	그때그때	33	66.0	4	100.0	16	61.5	21	75.0	30	73.2	7	53.8	19	70.4	18	66.7	16	53.3	21	87.5	37	68.5	
		한꺼번에	10	20.0	0	0	4	15.4	6	21.4	8	19.5	2	15.4	4	14.8	6	22.2	10	33.3	0	0	10	18.5	
		매마다 다름	7	14.0	0	0	6	23.1	1	3.6	3	7.3	4	30.8	4	14.8	3	11.1	4	13.3	3	12.5	7	13.0	
		전체	50	100.0	4	100.0	26	100.0	28	100.0	41	100.0	13	100.0	27	100.0	27	100.0	30	100.0	24	100.0	54	100.0	
빨래	빨래하는방법	손빨래	12	23.5	0	0	3	7.9	9	25.0	12	22.6	0	0	4	10.8	8	21.6	10	33.3	2	4.5	12	16.2	
		기계빨래	16	31.4	3	13.0	8	21.1	11	30.6	16	30.2	3	14.3	8	21.6	11	29.7	10	33.3	9	20.5	19	25.7	
		손/기계빨래	21	41.2	1	4.3	15	39.5	7	19.4	12	22.6	10	47.6	15	40.5	7	18.9	8	26.7	14	31.8	22	29.7	
		안 함	2	3.9	19	82.6	12	31.6	9	25.0	13	24.5	8	38.1	10	27.0	11	29.7	2	6.7	19	43.2	21	28.4	
	빨래하는장소	빨래하는방법	전체	51	100.0	23	100.0	38	100.0	36	100.0	53	71.6	21	28.4	37	100.0	37	100.0	30	100.0	44	100.0	74	100.0
			욕실	29	87.9	1	100.0	14	77.8	16	100.0	23	95.8	7	70.0	15	78.9	15	100.0	17	94.4	13	81.3	30	88.2
			베란다	3	9.1	0	0	3	16.7	0	0	1	4.2	2	20.0	3	15.8	0	0	1	5.6	2	12.5	3	8.8
			기타	1	3.0	0	0	1	5.6	0	0	0	0	1	10.0	1	5.3	0	0	0	0	1	3.6	1	2.9
	빨래하는장소	빨래하는방법	전체	33	100.0	1	100.0	18	100.0	16	100.0	24	100.0	10	100.0	19	100.0	15	100.0	18	100.0	16	100.0	34	100.0
			빨래줄	6	12.2	0	0	1	3.8	5	18.5	6	15.0	0	0	0	0	6	23.1	4	14.3	2	8.0	6	11.3
			건조대	41	83.7	4	100.0	23	88.5	22	81.5	33	82.5	12	92.3	26	96.3	19	73.1	24	85.7	21	84.0	45	84.9
			아무곳에 걸어놓음	1	2.0	0	0	1	3.8	0	0	1	2.5	0	0	0	0	1	3.8	0	0	1	4.0	1	1.9
빨래하는장소	빨래하는방법	세탁기 건조	1	2.0	0	0	1	3.8	0	0	0	0	1	7.7	1	3.7	0	0	0	0	1	4.0	1	1.9	
		전체	49	100.0	4	100.0	26	100.0	27	100.0	40	100.0	13	100.0	27	100.0	26	100.0	28	100.0	25	100.0	53	100.0	
		욕실	5	10.4	0	0	3	12.0	2	7.7	3	7.7	2	16.7	1	4.0	4	15.4	1	3.6	4	17.4	5	9.8	
		베란다	20	41.7	2	66.7	11	44.0	11	42.3	18	46.2	4	33.3	12	48.0	10	38.5	10	35.7	12	52.2	22	43.1	
빨래하는장소	빨래하는방법	거실	10	20.8	1	33.3	6	24.0	5	19.2	9	23.1	2	16.7	6	24.0	5	19.2	8	28.6	3	13.0	11	21.6	
		침실	8	16.7	0	0	2	8.0	6	23.1	7	17.9	1	8.3	3	12.0	5	19.2	6	21.4	2	8.7	8	15.7	
		실외	5	10.4	0	0	3	12.0	2	7.7	2	5.1	3	25.0	3	12.0	2	7.7	3	10.7	2	8.7	2	9.8	
		전체	48	100.0	3	100.0	25	100.0	26	100.0	39	100.0	12	100.0	25	100.0	26	100.0	28	100.0	23	100.0	23	100.0	

었고, 빨래를 널 때는 건조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2>.

청소를 하기 위해서 노인들은 주로 청소기, 막대걸레, 빗자루를 사용하고 있었고, 다른 가사작업과 마찬가지로 남성 노인의 대다수는 청소를 하지 않았고,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청소기를 사용했다. 청소하는 방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일반가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청소기가 노인가구에서는 31.4%만이 사용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사용률이 저조하였다. 75세 미만, 건강한 2인가구는 막대걸레와 청소기를 사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75세 이상, 허약한 1인가구는 빗자루와 청소기, 물걸레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그림 3>.

표 4. 계속

(N=74)

주요주행위	세부행위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월소득				건강 상태				가구 유형				전체			
				여		남		75세 미만		75세 이상		저		고		건강		허약		1인				2인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청소	청소하는 방법	청소기	11	25.0	5	71.4	9	33.3	7	29.2	12	31.6	4	30.8	9	33.3	7	29.2	7	26.9	9	36.0	16	31.4	
		빗자루	11	25.0	1	14.3	4	14.8	8	33.3	11	28.9	1	7.7	4	14.8	8	33.3	8	30.8	4	16.0	12	23.5	
		마른걸레	3	6.8	0	0	0	0	3	12.5	3	7.9	0	0	1	3.7	2	8.3	3	11.5	0	0	3	5.9	
		막대걸레	12	27.3	1	14.3	10	37.0	3	12.5	6	15.8	7	53.8	11	40.7	2	8.3	3	11.5	10	40.0	13	25.5	
		물걸레	7	15.9	0	0	4	14.8	3	12.5	6	15.8	1	7.7	2	7.4	5	20.8	5	19.2	2	8.0	7	13.7	
		전체	44	100.0	7	100.0	27	100.0	24	100.0	38	100.0	13	100.0	27	100.0	24	100.0	26	100.0	25	100.0	51	100.0	
약복용	약복용약갯수	0개	3	5.9	5	21.7	4	10.5	4	11.1	5	9.4	3	14.3	4	10.8	4	10.8	2	6.7	6	13.6	8	10.8	
		1개	20	39.2	9	39.1	17	44.7	12	33.3	15	28.3	14	66.7	18	48.6	11	29.7	7	23.3	22	50.0	29	39.2	
		2개	12	23.5	7	30.4	9	23.7	10	27.8	17	32.1	2	9.5	10	27.0	9	24.3	9	30.0	10	22.7	19	25.7	
		3개	13	25.5	1	4.3	8	21.1	6	16.7	13	24.5	1	4.8	4	10.8	10	27.0	10	33.3	4	9.1	14	18.9	
		4개 이상	3	5.9	1	4.3	0	0	4	11.1	3	5.7	1	4.8	1	2.7	3	8.1	2	6.7	2	4.5	4	5.4	
		전체	51	100.0	23	100.0	38	100.0	36	100.0	53	100.0	21	100.0	37	100.0	37	100.0	30	100.0	44	100.0	74	100.0	
	약보관장소	식탁 위	21	42.9	8	47.1	13	38.2	16	50.0	24	50.0	5	27.8	14	42.4	15	45.5	11	39.3	18	47.4	29	43.9	
		부엌 상부장/선반	8	16.3	4	23.5	8	23.5	4	12.5	5	10.4	7	38.9	8	24.2	4	12.1	2	7.1	10	26.3	12	18.2	
		침대/요 근처	12	24.5	1	5.9	7	20.6	6	18.8	12	25.0	1	5.6	3	9.1	10	30.3	11	39.3	2	5.3	13	19.7	
		기타	8	16.3	4	23.5	6	17.6	6	18.8	7	14.6	5	27.8	8	24.2	4	12.1	4	14.3	8	21.1	12	18.2	
전체		49	100.0	17	100.0	34	100.0	32	100.0	48	100.0	18	100.0	33	100.0	33	100.0	28	100.0	38	100.0	66	100.0		
목욕	샤워/목욕하는 위치	서서	12	24.5	13	56.5	15	41.7	10	27.8	13	25.0	12	60.0	16	45.7	9	24.3	6	21.4	19	43.2	25	34.7	
		욕조에 걸터앉아서	9	18.4	3	13.0	5	13.9	7	19.4	9	17.3	3	15.0	7	20.0	5	13.5	5	17.9	7	15.9	12	16.7	
		목욕용 의자	25	51.0	7	30.4	15	41.7	17	47.2	27	51.9	5	25.0	11	31.4	21	56.8	14	50.0	18	40.9	32	44.4	
		바닥에 앉아서	2	4.1	0	0	1	2.8	1	2.8	2	3.8	0	0	1	2.9	1	2.7	2	7.1	0	0	2	2.8	
		기타	1	2.0	0	0	0	0	1	2.8	1	1.9	0	0	0	0	1	2.7	1	3.6	0	0	1	1.4	
		전체	49	100.0	23	100.0	36	100.0	36	100.0	52	100.0	20	100.0	35	100.0	37	100.0	28	100.0	44	100.0	72	100.0	
	목욕도구	샤워기	28	57.1	17	73.9	25	69.4	20	55.6	28	53.8	17	85.0	29	82.9	16	43.2	13	46.4	32	72.7	45	62.5	
		대야/바가지	19	38.8	6	26.1	10	27.8	15	41.7	22	42.3	3	15.0	5	14.3	20	54.1	13	46.4	12	27.3	25	34.7	
		목욕용대야	2	4.1	0	0	1	2.8	1	2.8	2	3.8	0	0	1	2.9	1	2.7	2	7.1	0	0	2	2.8	
		전체	49	100.0	23	100.0	36	100.0	36	100.0	52	100.0	20	100.0	35	100.0	37	100.0	28	100.0	44	100.0	72	100.0	
전화빈도	거의안함	16	31.4	15	68.2	14	36.8	17	48.6	22	42.3	9	42.9	16	43.2	15	41.7	11	36.7	20	46.5	31	42.5		
	1일 2-5회	32	62.7	6	27.3	22	57.9	16	45.7	27	51.9	11	52.4	19	51.4	19	52.8	15	50.0	23	53.5	38	52.1		
	1일 6회 이상	3	5.9	1	4.5	2	5.3	2	5.7	3	5.8	1	4.8	2	5.4	2	5.6	4	13.3	0	0	4	5.5		
	전체	51	100.0	22	100.0	38	100.0	35	100.0	52	100.0	21	100.0	37	100.0	36	100.0	30	100.0	43	100.0	73	100.0		
TV 시청	TV 보는 장소	거실	23	46.9	12	48.0	21	55.3	14	40.0	20	39.2	15	65.2	23	59.0	12	34.3	10	37.0	25	53.2	35	47.3	
	침실	25	51.0	12	48.0	17	44.7	20	54.1	29	56.9	8	34.8	16	41.0	21	60.0	17	63.0	20	42.6	37	50.0		
	기타	1	2.0	1	4.0	0	0	2	5.6	2	3.9	0	0	0	0	2	5.7	0	0	2	4.3	2	2.7		
	전체	49	100.0	25	100.0	38	100.0	36	100.0	51	100.0	23	100.0	39	100.0	35	100.0	27	100.0	47	100.0	74	100.0		



(a) 욕실의 손빨래 1 (b) 욕실의 손빨래 2 (c) 거실 건조대를 이용한 빨래 널기 (d) 침실의 빨래를 이용한 빨래 널기

그림 2. 빨래 행위 사례



(a) 2인가구 사례 - 막대걸레로 청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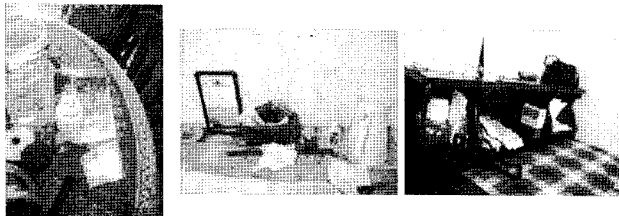
(b) 1인가구 사례 - 청소기가 무거워서 사용하지 않음

그림 3. 청소 행위 사례

노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약복용 행위가 중요하고 특징적인 행위로 보여지는데, 먼저 약복용 현황을 살펴보면,

1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노인이 전체의 약 90%이고, 이중 2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노인도 전체의 약 50%

였다. 복용약 개수는 소득과 가구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고소득에 비해서는 저소득이, 2인가구보다는 1인가구인 경우가 복용약 개수가 많았다. 노인들은 노화에 따른 인지능력 저하로 약복용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약을 보관하는 장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주로 식탁 위 같은 잘 보이는 곳에 보관을 하고 있었다. 또한 1인가구, 소득이 낮은 노인들은 식탁 위와 더불어 자신의 침대나 요 근처에 두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약을 보관하는 곳에는 약복용과 관련된 물품, 예를 들면 물이나 약봉지를 자를 수 있는 가위 등을 함께 보관하고 있었다<그림 4>.



(a) 약보관 장소 - 식탁위 (b) 약보관 장소 - 요 근처 (c) 약보관 장소 - 침대 머리맡

그림 4. 약보관 장소 사례

샤워·목욕행위도 노인들만의 고유 특성이 나타나는 주요 주생활행위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노인들은 샤워·목욕시 서서하는 노인보다 목욕용 의자에 앉아서 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여성이고 75세 이상이며 저소득층, 1인가구인 경우에는 주로 목욕용 의자에 앉아서 샤워·목욕을 하였다. 샤워·목욕시 사용하는 도구는 대체로 샤워기고, 목욕용 의자를 사용하는 경우와 비슷하게 저소득이며 허약하고 1인가구일 경우 샤워기보다는 대야·바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a) 욕실의 입식의자 (b) 욕실의 목욕용 의자 (c) 욕실 세면대의 대야 (d) 욕실 세면대 대신 대야 사용

그림 5. 목욕 행위 사례

전화통화는 1일 평균 2.5회 정도하는 경우가 조사대상 노인의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거의 안하는 경우도 42.5%였다. 전화하는 빈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 노인의 경우가 남성에 비해 전화통화 빈도가 높으며, 2인가구에 비해 1인가구의 전화통화 빈도가 높았다.

TV시청은 노인의 여가생활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행위인데, 주로 침실과 거실에서 이루어지며, 연령이 높고

저소득층이며 1인가구이고, 허약한 노인의 경우가 거실보다는 침실에서 TV시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노인단독가구의 주행위를 성별, 연령, 월소득, 건강상태, 가구유형 등에 따라 분석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노인’이라는 큰 범주에서 이해되어서는 안되고, 건강상태와 소득, 가구원수에 따른 다양한 시각으로 세분화시켜 접근되어야함을 시사한다. 특히 1인가구이며, 저소득층이고, 허약한 노인은 비교적 다양한 주행위(식사, 간식, TV시청 등)를 침실에서 하고 있으며, 이는 상황에 따라 노인들에게 침실은 과거 안방의 개념과 같이 다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를 통해 노인들에게는 좌식중심의 전통적 생활방식이 여전히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추측 할 수 있다. 반면에 고소득층이며 건강한 2인가구 노인들은 입식생활위주로 다른 연령층과 크게 다르지 않는 비슷한 주행위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3. 노인단독가구의 가구 보유 현황과 사용 실태

주거공간에서 가구의 역할은 크게 작용하는데, 어떠한 종류의 가구가 놓이느냐에 따라 공간의 성격이 규정되고 생활양식이 표현되며 가구 사용자의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강형구 외, 2005).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단독가구의 가구보유현황과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보유 가구 현황을 각 실별로 살펴보면, 침실¹⁴⁾에는 장롱(96.2%), 문갑(59.6%), 서랍장(57.7%), 화장대(50.0%), 침대(46.2%)의 보유율이 높았으며, 침실2에는 침실1에 비해 전반적으로 적은 수의 가구가 배치되어 있고, 주로 장롱, 서랍장, 침대 등이 있었다. 거실에는 다른 가구에 비해 소파(46.2%)와 장식장(36.5%)이 많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부엌에는 작업대와 상·하부 수납장이 하나의 부엌 가구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 세가지의 가구는 100%의 보유율을 보였다. 이 밖에 식탁 및 의자, 수납장은 조사대상의 50% 이상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외 가구들의 보유율은 아주 낮은 것으로 보아, 부엌에 배치된 가구들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욕실1의 경우도 부엌과 마찬가지로 양변기(98.1%)와 세면대(76.9%), 수납장(88.5%)을 거의 대부분의 조사대상 가구가 보유하고 있었으며, 욕조를 보유한 노인가구는 36.5%였고, 현관에는 대다수가 신발장을 보유하고 있었다(82.7%). 이러한 결과를 각 실의 보유 가구 실태를 20대-60대의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안방의 가구/주생활행위 실태를 조사한 선행연구(강형구 외, 2005)와 비교해보면, 본 연구의 노인단독가구는 침실(안방)의 침대와 화장대 보유율이 낮은 반면, 문갑의 보유율은 2배가량 높았다.

보유가구의 좌식·입식 가구 형태를 보면, 전반적으로 입식가구의 비율이 높지만, 각 실별로 차이를 보였다. 침

4) 본 연구에서 2개 이상의 침실과 욕실을 갖고 있는 경우, 규모를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의 침실과 욕실을 침실1, 욕실1로 명명하였다.

표 5. 실별 가구 보유 현황과 보유 가구 형태 및 용도

(N=52)

공간	보유가구	보유 현황		가구 형태						가구 용도*					
				좌식		입식		해당없음		주용도		부용도		사용안함	
		n	%	n	%	n	%	n	%	n	%	n	%	n	%
침실 1	장롱	50	96.2	0	0	50	100.0	0	0	49	98.0	1	2.0	0	0
	침대	24	46.2	1	4.2	23	95.8	0	0	20	83.3	1	4.2	3	12.5
	문갑	31	59.6	31	100.0	0	0	0	0	27	87.1	1	3.2	3	9.7
	화장대	26	50.0	15	57.7	8	30.8	3	5.8	23	88.5	1	3.8	2	7.7
	서랍장	30	57.7	8	15.4	16	53.3	6	20.0	30	100.0	0	0	0	0
	장식장	8	15.4	0	0	8	100.0	0	0	8	100.0	0	0	0	0
	협탁	7	13.5	0	0	7	100.0	0	0	6	85.7	0	0	1	14.3
	붙박이장	3	5.8	0	0	3	100.0	0	0	3	100.0	0	0	0	0
	의자	4	7.7	0	0	4	100.0	0	0	4	100.0	0	0	0	0
	옷걸이	7	13.5	0	0	6	85.7	1	14.3	7	100.0	0	0	0	0
	AV장	7	13.5	5	71.4	0	0	2	28.6	6	85.7	1	14.3	0	0
	상	3	5.8	2	66.7	1	33.3	0	0	3	100.0	0	0	0	0
	소파	4	7.7	0	0	4	100.0	0	0	4	100.0	0	0	0	0
	행거	2	3.8	0	0	1	50.0	1	50.0	2	100.0	0	0	0	0
	책상	1	1.9	0	0	1	100.0	0	0	0	0	0	0	1	100.0
수납장	1	1.9	0	0	1	100.0	0	0	1	100.0	0	0	0	0	
침실 2	장롱	21	40.4	0	0	21	100.0	0	0	20	95.2	0	0	1	4.8
	침대	16	30.8	0	0	16	100.0	0	0	11	68.8	2	12.5	3	18.8
	문갑	8	15.4	3	37.5	3	37.5	2	25.0	8	100.0	0	0	0	0
	화장대	9	17.3	5	55.6	4	44.4	0	0	6	66.7	1	11.1	2	22.2
	서랍장	20	38.5	3	15.0	11	55.0	6	30.0	19	95.0	1	5.0	0	0
	붙박이장	2	3.8	0	0	2	100.0	0	0	1	50.0	0	0	1	50.0
	장식장	6	11.5	0	0	5	83.3	1	16.7	5	83.3	0	0	1	16.7
	협탁	3	5.8	0	0	3	100.0	0	0	2	66.7	1	33.3	0	0
	책상	2	3.8	0	0	2	100.0	0	0	2	100.0	0	0	0	0
	행거	4	7.7	0	0	4	100.0	0	0	4	100.0	0	0	0	0
	의자	2	3.8	0	0	2	100.0	0	0	1	50.0	1	50.0	0	0
	옷걸이	2	3.8	0	0	2	100.0	0	0	2	100.0	0	0	0	0
	책상	8	15.4	0	0	8	100.0	0	0	5	62.5	1	12.5	2	25.0
	상	1	1.9	1	100.0	0	0	0	0	0	0	0	0	1	100.0
	거실	소파	24	46.2	2	8.3	22	91.7	0	0	23	95.8	1	4.2	0
의자		4	7.7	0	0	4	100.0	0	0	3	75.0	1	25.0	0	0
테이블		15	28.8	5	33.3	10	66.7	0	0	12	80.0	3	20.0	0	0
AV장		14	26.9	1	7.1	1	7.1	12	85.7	14	100.0	0	0	0	0
장식장		19	36.5	1	5.3	17	89.5	1	5.3	18	94.7	1	1.4	0	0
장롱		1	1.9	0	0	1	100.0	0	0	1	100.0	0	0	0	0
문갑		6	11.5	5	83.3	1	16.7	0	0	6	100.0	0	0	0	0
침대		1	1.9	0	0	1	100.0	0	0	0	0	1	100.0	0	0
서랍장		3	5.8	1	33.3	2	66.7	0	0	3	100.0	0	0	0	0
장식선반		1	1.9	1	100.0	0	0	0	0	1	100.0	0	0	0	0

실1·2는 좌식가구의 비중이 높고, 거실의 경우 좌식과 입식이 혼재되어 있으며, 부엌은 입식가구 비율이 높다. 최근 침실의 침대배치가 보편화되고 이에 따라 입식생활이 대중화되어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노인단독가구는 좌식가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6>.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사용 용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가구를 원래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만, 몇 개의 가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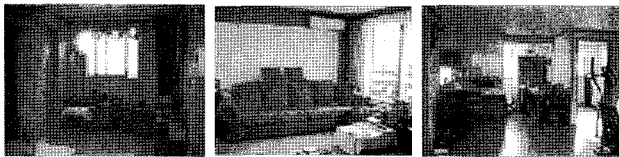
부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가구를 부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첫 번째는 노인 스스로가 살아온 습관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새로운 가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사용할 의향은 있으나 노인의 신체적인 제약으로 인해 사용이 어려운 경우이다.

표 5. 계속

(N=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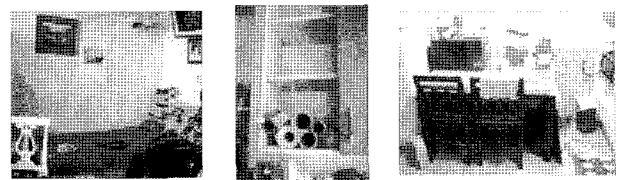
공간	보유가구	보유 현황		가구 형태						가구 용도*					
				좌식		입식		해당없음		주용도		부용도		사용안함	
		n	%	n	%	n	%	n	%	n	%	n	%	n	%
부엌	작업대	52	100.0	1	1.9	51	98.1	0	0	52	100.0	0	0	0	0
	상부수납장	52	100.0	0	0	52	100.0	0	0	47	90.4	0	0	5	9.6
	하부수납장	52	100.0	0	0	52	100.0	0	0	51	98.1	0	0	1	1.4
	수납장	30	57.7	0	0	24	80.0	6	20.0	30	100.0	0	0	0	0
	식탁	39	75.0	0	0	39	100.0	0	0	32	82.1	6	15.4	1	2.6
	의자	41	78.8	0	0	41	100.0	0	0	34	82.9	2	4.9	5	12.2
	서랍장	1	1.9	1	100.0	0	0	0	0	1	100.0	0	0	0	0
	상	4	7.7	0	0	4	100.0	0	0	4	100.0	0	0	0	0
	테이블	1	1.9	0	0	1	100.0	0	0	1	100.0	0	0	0	0
욕실 1	욕조	19	36.5	0	0	19	100.0	0	0	12	63.2	5	26.3	2	10.5
	양변기	51	98.1	0	0	51	100.0	0	0	50	98.0	1	2.0	0	0
	세면대	40	76.9	0	0	40	100.0	0	0	39	97.5	0	0	1	2.5
	수납장	46	88.5	0	0	46	100.0	0	0	46	100.0	0	0	0	0
	의자	2	3.8	0	0	2	100.0	0	0	2	100.0	0	0	0	0
	수납선반	1	1.9	0	0	1	100.0	0	0	1	100.0	0	0	0	0
욕실 2	욕조	1	1.9	0	0	1	100.0	0	0	0	0	0	0	1	100.0
	양변기	8	15.4	0	0	8	100.0	0	0	7	87.5	0	0	1	12.5
	세면대	6	11.5	0	0	6	100.0	0	0	5	83.3	0	0	1	16.7
	수납장	4	7.7	0	0	2	50.0	2	50.0	4	100.0	0	0	0	0
현관	신발장	43	82.7	0	0	43	100.0	0	0	42	97.7	0	0	1	2.3

*가구용도의 '주용도'는 가구고유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용도'는 가구고유의 기능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a) 좌식가구 중심의 침실 (b) 좌식·입식가구 혼용인 거실 (c) 입식가구 중심의 부엌

그림 6. 34평형 다세대주택 사례



(a) 침대의 부용도 - TV시청시 사용 (b) 부엌의 상부 수납장 사용안함 (c) 식탁의 부용도 - 음식과 주방가전 수납

그림 7. 가구의 사용용도 사례

침실1·2에서 침대의 경우 사용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는 침대에서 취침을 하지 않고 침대에 앉아서 TV를 보는 등의 소파 대용으로 사용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수납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부엌 상부수납장은 5가구(9.6%)가 사용안하고 있었는데, 상부수납장이 높게 달려있어 노인들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식탁과 식탁의자의 경우도 부용도와 사용안함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식탁을 식사하는 용도보다는 음식이나 약, 또는 소형 주방가전 등을 수납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는 식탁 사용이 습관이 되지 않아 상을 펴고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편하다는 의견과 입식 의자를 사용해서 앉은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들로 조사되었다. 식탁을 식사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식탁의자도 사용 안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7>.

4. 노인단독가구의 가전제품 보유 현황과 사용 실태

1) 노인단독가구의 가전제품 보유 현황과 사용실태

가구 사용실태와 마찬가지로 가전제품 사용실태에서도 노인단독가구만의 특성이 나타났다. 노인단독가구의 가전제품 보유현황과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노인단독가구의 대부분은 냉장고, 전자렌지, 가스렌지, 전기밥솥, 김치냉장고 등의 주방가전과 세탁기, 청소기, TV, 에어컨, 전화기 등의 가전제품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국전력거래소 전력계획처 수요예측팀이 2006년 조사한 '가전기기보급률 및 가정용 전력소비행태조사'의 전국가전기기보급률과 비교해보면, 조사대상 노인가구의 대부분 일반 가정의 보유율과 비슷하였다. 그러나 조사대상 가구가 일반가구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가전제품은 일반전화기, 김치냉장고 등이었고, 정수기와 컴퓨터 및 캠

표 6. 가전 제품 보유 현황과 보유실 및 사용기능 (N=52)

보유가전제품	보유 현황		보유실																사용기능					
			거실		침실1		침실2		욕실1		부엌·식당		베란다		다용도실		이동		다기능		단순기능		사용안함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냉장고	51	98.1	1	2.0	0	0	1	2.0	0	0	45	88.2	2	3.9	2	3.9	0	0	0	0	51	100.0	0	0
전자렌지	39	75.0	1	2.6	0	0	1	2.6	0	0	35	89.7	2	5.1	0	0	0	0	0	0	34	87.2	5	12.8
가스렌지	48	92.3	0	0	0	0	0	0	0	0	48	100.0	0	0	0	0	0	0	1	2.1	46	95.8	1	2.1
전기밥솥	48	92.3	3	6.3	1	2.1	1	2.1	0	0	42	87.5	1	2.1	0	0	0	0	4	8.3	43	89.6	1	2.1
김치냉장고	37	71.2	5	13.5	1	2.7	2	5.4	0	0	22	59.5	6	16.2	1	2.7	0	0	1	2.7	36	97.3	0	0
식기세척기	5	9.6	0	0	0	0	0	0	0	0	5	100.0	0	0	0	0	0	0	0	1	20.0	4	80.0	
식기건조기	2	3.8	0	0	0	0	0	0	0	0	2	100.0	0	0	0	0	0	0	0	2	100.0	0	0	
음식물처리	3	5.8	0	0	0	0	0	0	0	0	3	100.0	0	0	0	0	0	0	0	3	100.0	0	0	
전기주전자	10	19.2	2	20.0	2	20.0	0	0	0	0	6	60.0	0	0	0	0	0	0	0	0	10	100.0	0	0
정수기	5	9.6	0	0	0	0	0	0	0	0	5	100.0	0	0	0	0	0	0	0	5	100.0	0	0	
세탁기	48	92.3	1	2.1	1	2.1	0	0	16	33.4	3	6.3	18	37.5	9	18.8	0	0	2	4.2	42	87.5	4	8.3
청소기	32	61.5	6	18.8	2	6.3	4	12.5	0	0	1	3.1	1	3.1	7	21.9	11	34.4	1	3.1	17	53.1	14	43.8
TV1	51	98.1	28	54.9	22	42.3	1	1.9	0	0	0	0	0	0	0	0	0	0	1	2.0	50	98.0	0	0
TV2	16	30.8	4	25.0	6	37.5	6	37.5	0	0	0	0	0	0	0	0	0	0	3	18.8	12	75.0	1	6.3
컴퓨터	11	21.2	1	9.1	1	9.1	8	72.7	0	0	0	0	0	0	1	9.1	0	0	2	18.2	7	63.6	2	18.2
카세트라디오	8	15.4	3	37.5	4	50.0	0	0	0	0	1	12.5	0	0	0	0	0	0	0	6	75.0	2	25.0	
오디오	3	5.8	1	33.3	2	66.7	0	0	0	0	0	0	0	0	0	0	0	0	0	3	100.0	0	0	
에어컨	29	55.8	25	86.2	4	13.8	0	0	0	0	0	0	0	0	0	0	0	0	2	6.9	18	62.1	9	31.0
선풍기	23	44.2	15	65.2	3	13.0	1	4.3	0	0	1	4.3	0	0	0	0	3	13.0	0	0	23	100.0	0	0
유무선전화기1	50	96.2	28	54.9	22	42.3	1	1.9	0	0	0	0	0	0	0	0	0	0	3	6.0	47	94.0	0	0
유무선전화기2	9	17.3	2	22.2	4	44.4	3	33.3	0	0	0	0	0	0	0	0	0	0	0	9	100.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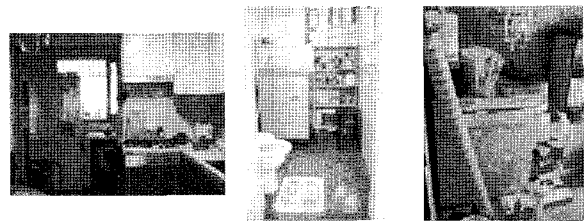
*사용기능의 '다기능'은 가전제품에 내장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기능'은 가전제품 고유의 대표 기능 한가지만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퓨터 관련 제품(프린터 등)의 보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화기의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일반 가정에서는 일반 전화기만큼 휴대폰을 많이 쓰지만, 휴대폰 보급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노인들은 주로 집전화기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들의 식생활에서 김치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김치를 담그고 보관하는 습관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세대보다 김치냉장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전국 가구 평균 컴퓨터 보급률은 75.1%인데, 조사대상 가구의 21.2%만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결과로 조사대상 노인들은 컴퓨터 접근가능성이 낮고, 따라서 컴퓨터 사용 능력도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각 가전제품이 배치되어 있는 공간을 살펴보면, 냉장고나 가스렌지, 전자렌지, 전기밥솥 등의 주방가전은 주로 부엌 및 식당에 있었으나, 김치냉장고는 부엌/식당 외의 베란다나 거실, 침실 등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기존의 부엌이 규모가 협소하거나 김치냉장고와 같은 대형 주방가전에 대한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계획되었기 때문에, 사용의 편리성과는 무관하게 부엌과 식당외의 남은 공간에 배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준다. 세탁기의 설치위치도 베란다와 욕실, 다용도실 등으로 혼재되어 나타났는데, 이는 주택유형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는 다용도실에 세탁기를 배치할 수 있도록 설비와

공간 확보 측면에서 배려하고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연립/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려가 부족하여 베란다나 욕실에 세탁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그림 8>. TV와 전화기는 2대 이상 보유한 가구 비율이 높았고, 두 제품 모두 주로 거실과 침실에 배치되어 있었다.



(a) 베란드의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b) 욕실의 세탁기 (c) 침실2의 김치냉장고

그림 8. 가전제품의 배치 사례

가전제품에 대해 종합분석해보면, 조사대상 노인들은 대부분의 가전제품을 기본(단순)기능으로만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최신 가전제품은 한 제품에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출시되지만, 실제로 노인들은 주로 단순기능 사용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자렌지, 식기세척기, 청소기, 에어컨 등은 보유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는데, 가구와 마찬가지로 가전제품도 자녀나 주변

사람들이 구입해줬으나 본인에게 필요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본인이 필요하여 구입하였으나, 사용하기에 불편해서 사용을 못하는 것이 사용안하는 주된 이유였다.

2) 조사대상 노인단독가구의 보유가전제품 불편사항

<표 7>은 자유응답식으로 조사된 보유가전제품의 사용시 불편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청소기, 세탁기, 전자렌지, 김치냉장고, 가스렌지, 전기밥솥 순으로 불편사항이 많이 조사되었고, 이러한 가전제품은 앞서 조사된 가전제품 사용응도에서 '사용안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가전제품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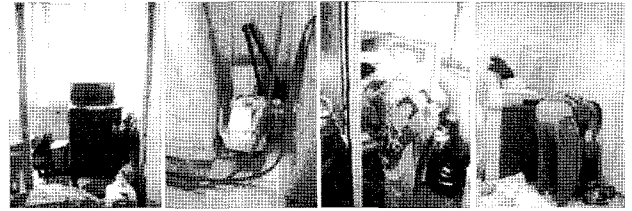
표 7. 보유가전제품 사용시 불편사항

가전	불편사항*											
	전체		디자인		용량		기능		유지관리		사용자측면	
	n	%	n	%	n	%	n	%	n	%	n	%
냉장고	10	100.0	3	30.0	2	20.0	3	30.0	2	20.0	0	0
전자렌지	14	100.0	1	7.1	0	0	6	42.9	1	7.1	6	42.9
가스렌지	10	100.0	1	10.0	0	0	1	10.0	2	20.0	6	60.0
전기밥솥	10	100.0	2	20.0	0	0	7	70.0	0	0	1	10.0
세탁기	18	100.0	5	27.8	5	27.8	3	16.7	3	16.7	2	11.1
TV	8	100.0	1	12.5	0	0	3	37.5	0	0	4	50.0
에어컨	7	100.0	1	14.3	0	0	5	71.4	0	0	1	14.3
전화기	5	100.0	0	0	0	0	3	60.0	0	0	2	40.0
컴퓨터	1	100.0	0	0	0	0	0	0	0	0	1	100.0
김치냉장고	14	100.0	12	85.7	1	7.1	0	0	1	7.1	0	0
식기세척기	6	100.0	2	33.3	1	16.7	0	0	3	50.0	0	0
선풍기	2	100.0	0	0	0	0	2	100.0	0	0	0	0
청소기	17	100.0	9	52.9	0	0	3	17.6	1	5.9	4	23.5

*자유응답식으로 조사된 내용을 종합분석하여 연구자가 유형화하여 정리하였고, 각 항목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디자인: 크기, 모양, 조작버튼, 글씨 등의 디자인상의 불편사항
- 용량: 용량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생기는 불편사항
- 기능: 필요한 기능이 없거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편사항
- 유지관리: 사용시 사용비용이 많이 들거나, 관리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서 생기는 불편사항
- 사용자측면: 사용자가 조작에 익숙하거나, 사용법을 몰라서 생기는 불편사항

세탁기는 디자인과 용량, 기능, 유지관리 측면의 불편사항이 골고루 조사되었는데, 세탁기 제품설계는 우리나라 4인 표준가구에 맞는 용량과 신체 건강한 사용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인 사용자는 여러 측면에서 불편함을 많이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며 앞으로 반드시 노인 사용자를 고려한 세탁기 디자인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두 번째로 청소기는 디자인과 사용자 측면의 불편사항이 많이 지적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허약하고 힘이 없는 노인들에게 청소기는 무겁고 커서 사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김치냉장고의 디자인 문제도 많이 지적되었는데, 그 중에는 김치냉장고가 깊숙해 김치통을 꺼내기 힘들다는 응답이 많았다<그림 9>. 전자렌지의 불편사항은 노인 스스로가 전자렌지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사용을 꺼려하고 두렵다는 것과 조작버튼이 작고, 쉽게 인지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a) 세탁기 - 세탁통이 너무 깊어서 책을 쌓아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세탁물을 꺼낸다.
 (b) 세탁기 - 세탁통이 너무 깊어서 큰집게를 이용하여 세탁물을 꺼낸다.
 (c) 냉장고 - 아랫부분인 냉장고를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냉장고 사용시 허리를 많이 구부려야 한다.
 (d) 김치냉장고 - 깊숙한 곳에 서 무거운 김치통을 꺼내는 것이 불편하다.

그림 9. 가전제품의 사용시 불편사항 사례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단독가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관찰·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수행위 특성과 가구 및 가전제품의 보유실태와 사용 특성을 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노인 거주자의 일상생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가구·가전제품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수행위 특성 및 이와 관련된 가구 및 가전제품의 사용 특성과 연결시켜 노인 단독가구의 주생활을 지원하는 가구·가전제품의 개선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식사와 관련한 행위는 취사와 취사한 밥의 보관, 식사하기, 간식먹기, 요리 등의 다양한 세부행위가 있다. 먼저 조사대상 노인의 대부분은 전기밥솥을 이용하여 취사를 해결하며, 전기밥솥에 보온기능을 사용하여 해놓은 밥을 보관한다. 노인단독가구는 가구원수가 적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양의 쌀로 밥을 하더라도 밥이 남게 되고 해놓은 밥을 먹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오랜 시간을 보온상태로 두어도 밥맛이 유지되며, 적은 용량의 전기밥솥을 원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식은 밥을 데우기 위해서 간편하게 전자렌지의 데우기 기능을 사용하지만, 노인의 경우, 전자렌지가 있더라도 사용법을 모르거나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작기기의 글씨가 크게 적혀 있고, 많은 기능을 갖추기 보다는 '데우기' 등의 간단한 기능을 갖춘 노인을 배려한 전자렌지 디자인이 요구된다.

2) 식사 행위(간식포함)는 주로 부엌 및 식당에서 이루어지지만 침실과 거실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노인들에게 이전에 안방생활을 하던 습관이 남아있고 식탁이 있더라도 식탁 사용이 불편하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1인가구의 노인들은 혼자서 식사하는 것이 적절하여 TV를 시청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TV는 대부분 거실이나 침실에 배치되어 있어서 TV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식사를 고정된 장소에서 하지 않고 상을 이동해가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몸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힘든 일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엌 또는 식당에 보기 편한 크기의 TV를 설치하여 혼자 식사시 적적함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노인들에게 입식생활을 권장하지만, 실제로 식탁과 같은 입식가구의 사용을 불편해 하는 노인들이 많이 관찰되었는데, 이 사례는 노인 자신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가구사용패턴(좌식중심)을 유지하면서 기존 좌식가구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구디자인도 필요함을 보여준다.

3) 조사대상 노인가구의 주방 가전 중에서 70%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김치냉장고는 향후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른 주택유형에서도 사용의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부엌가구 배치계획에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하고 음식물을 넣고 꺼내기 쉽도록 '서랍식'과 같은 디자인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4) 식사와 관련된 행위로 설거지와 같은 식사 후 정리작업도 허약한 노인들에게는 힘든 행위로 관찰되었다. 아직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많이 보급되고 있는 식기세척기는 노인들의 가사노동을 덜어줄 수 있는 가전제품으로, 실제로 조사대상 노인가구 중 약 10%의 가구가 식기세척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유 노인의 대부분이 불편사항을 지적하였는데 유지관리에 대한 불만사항이 가장 많았고, 용량과 디자인에 관한 불편사항도 조사되었다. 앞서 언급한 전자렌지와 마찬가지로 복잡하지 않고, 필수기능만을 갖춰 디자인되어야 한다. 또한 가전제품 이용에 있어서 유지비를 걱정하거나, 용량이 커서 사용하기에 부담을 느끼는 노인 거주자를 위해서 소형 에너지 절감 가전제품의 보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빨래 행위 중 세탁과 관련해서는 손빨래와 기계빨래를 병행하거나, 손빨래 또는 기계빨래만을 하는 노인들로 양분화되는데, 1인가구이며 저소득층은 세탁기가 있더라도 유지비가 부담되고, 본인의 세탁량에 비해 세탁기의 용량이 커서 세탁기를 사용하기보다는 간단하게 욕실에서 손빨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탁과 함께 세탁물을 건조시키는 가사노동도 노인들이 힘들게 느끼고 있었으며, 대부분 베란다에서 건조대를 사용하여 세탁물을 건조하고 있었지만, 거실이나 침실에서 건조하는 경우도 전체 조사대상의 약 35%정도였다. 관찰된 세탁과 관련된 행위를 바탕으로 세탁관련 가전제품에 대한 제안을 하자면, 세탁량이 적은 노인단독가구에는 적은 용량과 접근이 편리한 디자인의 세탁기가 필요하고 욕실에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건조대는 세탁기와 가능한 인접한 곳에서 빨래를 널거나 걸기 쉬운 전동방식의 건조대를 설치하는 것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청소는 주로 청소기와 막대걸레를 이용하여 해결하고 있는데, 이는 허리를 구부리거나 무릎을 꿇고 물걸레질을 하거나 빗자루질을 하는 것보다 서서 청소기와 막대걸레를 밀면서 청소를 하는 것이 신체적 부담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졌다. 하지만 서있는 상태를 지속적

로 유지하지 못하는 허약한 노인들은 앉아서 물걸레질을 하거나 거의 청소를 하지 못하며 지내고 있었다. 노인들의 청소행위를 지원할 수 있는 가전제품인 청소기는 노인이 들기에 무겁기 때문에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가전제품이었는데, 현재 보급되고 있는 로봇청소기를 사용하면 노인에게 신체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로봇청소기와 같은 최신가전제품을 노인들이 사용하기 어렵고 조작하기 복잡하게 만들면 이 또한 구입 후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작이 간편하고 단순한 기능으로 디자인하여 사용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7) 약복용 행위는 일반사람들에 비해 노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행위였으며, 조사대상 노인들의 대부분이 1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약을 보관하는 장소도 식탁 위나 침대 근처 등 본인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이었다. 특히 허약한 노인들은 본인의 침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침대나 요 주변에 약, 약복용을 위한 물, 돋보기 등 본인에게 중요한 물품들을 보관하고 있음이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침대에 충분한 수납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약을 보관하고 제시간에 복용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제품들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8) 샤워와 목욕행위는 소득과 건강상태, 가구유형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 소득이 낮고, 허약하며 1인가구일수록 목욕용 의자에 앉아서 대야와 바지를 사용하여 샤워/목욕행위를 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샤워공간이 협소하여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며, 대야와 바지를 사용하여 앉아서 샤워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또한 노인가구는 욕조 보유율이 낮고, 욕조를 보유하고 있는 노인가구 중에서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욕조에 걸터앉아서 샤워하는 노인들도 상당수 있었다. 노인들의 샤워 및 목욕행위를 지원하기 위해서 욕조에 편하게 앉아 샤워하거나 목욕할 수 있는 안전한 디자인의 욕조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욕조에 목욕용 의자를 설치하되, 욕실에서 샤워 외에 손빨래 등의 다양한 생활행위가 이루어지므로, 고정형보다는 이동형으로 디자인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9) 전화통화 행위는 혼자 사는 노인들을 주변 사람들과 연결해주는 행위로 노인단독가구 거주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졌다. 주로 자녀 또는 손자녀, 혹은 친구들과 통화하는 빈도가 높았고, 대부분 거실과 침실에 전화기를 배치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시력이 감퇴된 노인들을 위해 개발된 빅버튼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노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사용자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권장할만한 디자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전화기의 벨소리와 전화통화소리 등 음량이 작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으므로, 버튼의 크기와 같은 디자인측면과 함께 음성부분을 배려하여 노인가구가 외부와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10) TV시청은 대다수의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주택 내에서 행하는 여가행위로, 거의 모든 가구가 TV를 보유하고 있으며,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가구도 전체 조사대상 약 30%였다. TV는 주로 거실과 침실에 배치되어 있었고, 비교적 젊고 고소득층이며 건강하며 2인가구 유형에 속하는 노인은 주로 거실에서 TV시청을 하며, 저소득층이며 허약한 1인가구일 경우는 대체로 침실에서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주거공간은 저소득층의 것에 비해 거주 면적이 크기 때문에 공간의 기능분화가 비교적 확실하고, 2인가구는 1인가구에 비해 부부가 함께 하는 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소득층 2인가구의 TV시청 행위는 거실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가족단위 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1인가구는 본인 중심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본인이 거처하는 곳에 TV를 배치해놓고 시청하며, 혼자 지내는 생활이 적적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TV를 켜놓은 채로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공통적으로 노인단독가구는 TV시청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반면에, 젊은 세대들은 점차 TV외에 컴퓨터 또는 인터넷을 통해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몸이 허약하여 주택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무료한 노인들에게 주택 내에서 즐길 수 있는 TV시청 외의 컴퓨터를 활용한 다양한 여가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나, 노인단독가구는 자녀세대와 동거하는 2인가구에 비해 컴퓨터보유율이 낮고 정보기기들을 접할 기회도 적기 때문에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은 굉장히 낮다. 따라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두려워하는 노인들을 위해 사용법이 익숙하고 매일 쉽게 이용하는 TV를 통하여 인터넷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앞으로 노인들에게 제공될 디지털 TV는 단순한 모양의 리모콘과 같이 기존에 친근하게 생각되어지는 도구를 활용하며, TV채널을 돌리듯이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 노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TV는 이미 노인들에게 익숙한 매체이기 때문에 TV를 이용한 다양한 여가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노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노인 거주자의 생활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보급되기 시작한 홈네트워크·홈오트메이션과 같은 서비스도 노

인들을 위해서는 웹패드와 컴퓨터 등의 기기보다는 TV와 같은 친숙한 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연구결과는 노인단독가구의 주행위와 가구·가전제품의 사용 특성을 반영한 제품설계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고, 이러한 제품들을 통해 노인단독가구를 지원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단독가구의 주거공간 전반에 걸쳐 모든 가구와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지만, 향후에는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각 실별과 각각의 가구·가전제품의 구체적인 사용행태와 관련된 후속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1. 강형구·강봉임·이청웅(2005), 아파트 안방의 가구와 주생활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6(3), 1-7.
2. 박윤정·김경연·이연숙(2007), 라이프스타일공학 구현을 위한 주거공간 내 생활행위 분석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9(1), 125-130.
3. 국토해양부(2008), 2007년도 주거실태조사: 노인가구 통계 보고서
4. 김미희·이유미(2005), 중소규모 아파트 거주자의 대표적인 주생활행태-3침실형 30평형대를 대상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6(6), 21-27.
5. 송대호(2006), 부산시 아파트단위평면의 공·사실 면적구성에 관한 연구-시기별 면적구성 변화 및 거주자의 주생활행위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7(5), 159-167.
6. 이미혜·윤재웅·장석하(1999), 아파트 안방의 주생활행위와 가구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0(4), 137-146.
7. 임미정(2002), 거주자 생활 중심으로 본 경기 전통민가 연구-고양시의 폐쇄형 7-자집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 주서령·김민경(2005), 노인주거시설 단위주호의 부엌가구 디자인 및 사용실태, 디자인학연구, 18(4), 247-256.
9. 최유진·이민경·김태영(2007), 도심한옥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주생활행위 및 공간이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7(1), 525-528.
10. 한국전력거래소 전력계획처 수요예측팀(2006), 가전기기 보급률 및 가정용 전력소비행태조사, 통계청.

접수일(2009. 11. 25)

수정일(1차: 2010. 1. 13, 2차: 2. 8)

게재확정일자(2. 18)